



의정부주보



✠ 성모 승천 대축일 ✠ 2019년 8월 15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12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 · 팩스 031-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 French, 성모 승천(The Assumption of the Virgin), c. 1630/1632, 캔버스에 유채(oil on canvas)



2019 성모 승천 대축일

교구장 메시지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하느님께서 구세주를 낳아주시는 어머니이시며 신앙인의 모델이기도 한 마리아를 통해 당신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보여주신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구원의 협조자로 마리아를 택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낳게 하셨으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돌봐주시는 마리아를 인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구원사역을 완성하시는 순간에 당신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요한 19,26)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우리 고통과 함께하시는 어머니가 되셨으며, 모든 인류의 동반자가 되셨습니다.

인류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는 자애로운 눈으로 당신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민족들의 삶에 함께하시며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십니다.”(복음의 기쁨 286)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신 마리아는 한국 교회의 수호자가 되셨으며, 전쟁의 위험을 겪고 있는 민족이나 평화의 상실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어 위로하시며 당신이 평화의 어머니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로운 세상

인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가장 큰 기쁨은 온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묘사한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물고 다니는”(이사 11,6) 평화로운 동물의 세계처럼,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는 세계가 되

는 것이 평화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바라시는 세계일 것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세계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착한 지도자가 많을 때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지금 많은 국가들이 저마다 강한 나라를 지향하며, 자기 나라가 최고요 우선인 나라로 만들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한 질주에 그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해결에 제일 큰 영향력을 쥐고 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지도자이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올바른 지도자들의 출현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지구를 걱정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들을 가여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전쟁을 없애고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 애쓰는 지도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에, 하느님께서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큰일인 한일 문제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큰일인 것은 일본과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36년씩이나 식민지배로 괴롭혀왔던 일본이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문제삼아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감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과 해법은 식민지 문제에 있습니다. 식민지 문제가 근원인 한일 문제는 그동안에 있었던 협정이나 법 해석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민족

의 역사와 삶을 온통 망가뜨린 아픔과 고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후 50주년을 맞이하여 무라야마 총리는 담화문(1995.8.15)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담화문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①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②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는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이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문은 이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은커녕, 재해석을 주장하는 등 사과가 무색해지는 일들이 생겨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감정이 예민해지는 이 때에 우리 신앙인들마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올바른 한일 관계 회복은 정치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역사의 진실을 알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지식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많아질 때 가능해집니다. 최근 들어 일본과의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 단체들의 교류, 기업과 회사들의 교류, 교회간의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우정을 증진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한일 관계는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이야말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적잖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과거 역사를 너무 모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특히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일 수 있는 근대사는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외면시키는 집단은 보수 정치집단을 비롯한 보수적인 집단들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진실을 덮어두고 강했던 일본의 역사를 후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합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는 마음과 함께 대화에 나서야 하며, 진실된 근대 역사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교들은 25년 전부터 해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교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 모임을 시작하게 된 동기 가운데에는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 주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세계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지도자들의 통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계에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정직하고 의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성령을 통해 정치 지도자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 안에는 갈등과 대립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편을 갈라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증오와 적의에 가득한 말부터 당장 멈춰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 되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늘에 오르신 성모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빌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평화의 어머니시어 저희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2019년 성모 승천 대축일
천주교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

가이 기현



성모 승천 대축일



입당송 묵시 12,1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제1독서 묵시 11,19ㄱ; 12,1-6ㄱㄴ.10ㄱㄴㄷ

화답송 시편 45(44),10.11.12.16(◎ 10ㄴㄹ)

-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서 있나이다.
-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서 있나이다. ◎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제2독서 1코린 15,20-27ㄱ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복음 루카 1,39-56

영성체송 루카 1,49.48 참조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